



“줄을 서시오”

MVP 윤석민에 박찬호·김광현·류현진 등 도전자

선동열·최동원 이은 또 하나의 ‘퍼펙트 게임’ 관심

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 선동열과 최동원의 15이닝 무승부 경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화제가 되고 있다.

프로야구 최고의 이벤트 중 하나로 남은 전설의 맞대결, 또 다른 전설이 2012년에 만들어 질 수 있을까? KIA 선동열 감독의 대답은 ‘Yes’다. 퍼펙트 게임의 주인공 선 감독은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다음에는 꼭 끝장 승부를 벌여보자고 했었는데 그려지 못했다”며 “당시 승

KIA 선동열 감독

“에이스 맞대결 피하지 않겠다”

류현진과의 대결 가장 기대

부도 재미있었지만 오히려 윤석민·류현진·김광현의 승부가 더 흥미로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던지는 투수가 괜찮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상대팀 에이스와의 대결을 피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투수들은 자신의 로테이션에 맞춰 미리 준비를 한다. 준비되는 대로 경기를 하는 게 낫다. 억지로 등판 날짜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선 감독이 ‘정면승부’를 예고하면서 투수 4관왕 KIA 윤석민을 중심으로 한 프로야구 에이스들의 맞대결이 뜨거운 2012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민이 품는 최고의 파트너는 한화의 류현진이다.

류현진은 2006년 프로무대에 데뷔함과 동시에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석권하며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로 군림 해왔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일단 후 가장 적은 11승을 올리는데 그쳤지만 류현진은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에이스다.

윤석민은 “박찬호 선배는 어렸을 때 TV로 봤던 꿈과 같은 존재다. 박찬호 선배와의 대결도 물론 기대되지만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인 류현진과의 대결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민과 류현진은 2007년 한차례 대결을 벌인적이 있지만 승패를 가리지는 못했다. 2011 눈부신 활약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한 윤석민은 “둘이 만나게 된다면 영화처럼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다. 많은 팬들이 투수전을 기대할 것이다. 공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것이다. 부담감도 들겠지만 언론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SK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로페즈와의 대결도 윤석민에게는 색다른 이벤트다.

윤석민은 “3년을 함께 했던 선수라서 상대 투수로 만난다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다. 직접 서봐야 하겠지만 색다를 것 같다. 물론 맞대결에서 승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KIA는 오는 4월7일 SK와 문학구장에서 개막 2연전을 치른다.

윤석민은 10일 삼성과의 홈 개막전을 책임질 것으로 보여 동료에서 적이 된 두 투수의 맞대결 가능성이 낮지만 두 선수의 등판 여부는 개막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첫승 노린다

PGA 소니오픈 오늘 개막…한국계 8명 참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계) 선수들이 소니오픈(총상금 550만 달러·우승상금 99만 달러)에 출전한다.

소니오픈은 올 시즌 두 번째 PGA 투어 대회로, 1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골프장(파70·7068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최경주, 재미교포 나상욱과 올해 PGA 투어에 입성한 배상문·노승열 등 모두 8명의 코리안 브라더스가 출전한다.

9일 하와이 마우이에서 끝난 시즌 개막전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지난해 우승한 28명만 출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140명이 겨루는 소니오픈은 PGA 투어 멤버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사실상의 시즌 첫 대회인 셈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쟁이 두터워진 한국 선수단은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

시즌 개막전에서 공동 5위를 차지한 최경주는 특히 소니오픈에 거는 기대가 크다.

1라운드에서 일본의 ‘골프 스타’ 이시카와 료와 동반 플레이를 하는 최

경주는 “개막전 1.2리운드 때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페트와 샐이 좋지 않았지만 정상 컨디션을 되찾고 있다”며 “소니오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주에 대회 코스를 사전답사한 최경주는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GA 투어 홈페이지는 2008년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기록한 최경주를 우승 후보 2순위에 올려놓았다.

2008년과 2009년 연속톱5에 든 나상욱도 PGA 투어 홈페이지가 7위로 예상한 우승 후보다. 루키인 배상문과 노승열에게는 이번 대회가 PGA 투어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시험무대다.

배상문은 2009년 초청선수로 소니오픈에 출전했다가 컷 탈락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연합뉴스



미국프로골프(PGA) 시즌 개막전인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5위를 차지했던 최경주가 12일 하와이에서 시작되는 소니오픈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최경주 세계 랭킹 14위로 점프

1위 루크 도널드

23위(3.58점)에 올랐다.

배상문은 네 계단 떨어진 34위(3.25점), 양용은은 두 계단 떨어진 47위(2.85점)에 자리했다.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12위를 한 나상욱은 67위(2.10점), 노승열은 107위(1.53점)에 머물렀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25위(3.54점)로 떨어졌다.

세계랭킹 1~2위는 루크 도널드(잉글랜드·10.21점),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7.92점),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7.65점) 순으로 지난주와 변동이 없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밀알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클릭, 코팅, 실내클리너,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케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냉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디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모비스순정용품, 카익세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최대 500평 매장
주차장 700명 주차걱정 끝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트리트버튼

